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지역 독서 소외계층에 도서 25만 권 기부 한달간 기부 캠페인

2026. 3. 5.

- **쿠팡, 독서 소외계층에 도서 25만권 기부 31일까지 캠페인**
- **강원 경상 충청 전라도 지역 작은 도서관 등에 전달 예정**

2026. 03. 05. 서울 - 쿠팡은 도서 소외 계층을 위해 최소 25만 권(약 37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하는 '무한하게 이어지는 나의 한 권' 캠페인을 한달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이 책을 구매하는 만큼 아동센터와 복지관에 필요한 도서를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고객은 초중고 참고서·인문교양·자기계발·학습만화, 기존 인기 베스트 셀러 등 다양한 도서를 구매하기만 해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쿠팡은 고객이 구매하는 도서 수량만큼 각 기부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기 교육 참고서, 유아·어린이 도서, 스테디셀러를 선별해 기부한다. 'EBS 강의노트' '우등생 해법 국어' '천일문' 등의 교육 참고서부터 '마법천자문' '아띠래빗 까꿍놀이'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등의 유아·어린이 도서들을 마련했다. '철도원 삼대' '일인칭단수' 등의 스테디셀러도 포함된다.

지난 12월 쿠팡과 아름다운가게가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맺고 있다.

이번 도서 기부 캠페인을 위해 쿠팡은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 103개 아름다운 가게 매장을 거쳐 강원 경상 충청 전라도 등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필요에 맞춰 도서를 기부한다. 고객들의 도서 수요를 고려할 때 최소 25만 권 이상 기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쿠팡의 첫 도서 기부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서 구매 고객에게는 책을 빠르게 로켓배송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따뜻한 지식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도서 판매를 넘어 독서 사각지대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